

닭고기조금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0 0 1

닭 복경기 소비 활성화를 노려라!

월드컵의 열기 복경기 이후 아시안게임까지 이어지길...

여름철 보양식은 역시! 닭고기

1년 중 가장 닭고기 소비가 많이 되고 있는 여름과 함께 삼복(三伏)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월드컵의 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분위기가 북시즌(초복 7월 18일, 중복 7월 28일, 말복 8월 7일)까지 이어져 침체일로에 있는 닭고기 소비 활성화에 청신호가 오기를 모든 닭고기 업계가 원하고 있다. 닭고기 소비는 2월이 가장 적고 복을 낀 7월이 가장 소비가 많아진다. 2월에 평균 5천만수가 소비되는 것에 비해 7월에는 무려 7천8백만수로 2월보다 무려 74%나 많은 물량이 소비되기 때문에 복경기를 겨냥한 집중적인 생산으로 자칫 생산과잉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닭고기는 1고3저(고단백질,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식품으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성인병 예방과 다이어트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한방에서는 닭고기가 비장과 위장을 따뜻하게 해 소화력을 높이고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고, 기운을 나게 해 보양식으로 제격이며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좋다고 나와 있다. 삼복에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보양식인 삼계탕이다.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보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음식이기 때문이다. 미국에까

지 우리의 전통 삼계탕이 수출길이 열린 가운데 이미 일본은 물론 동남아 지역에서도 한류열풍에 힘입어 삼계탕 수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삼계탕은 백세미, 응추, 토종닭 등으로 만들어 내는데 산란계 암컷과 육용종계 수컷을 교잡시켜 만들어내는 백세미가 대세이다. 우리 고유의 삼계탕이 전 세계적으로 고유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 생산잠재력 여전히 높아

AI의 여파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월드컵 특수에 기대를 걸었던 닭고기 경기가 대한민국 대표팀의 경기시간대(오전)로 인해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AI발생으로 육용종계 50여만수가 매몰처분되었고 실용계 역시 340여만수가 매몰처분되었으나 금년도 종계사육수수는 지난해보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원종계(GPS) 쿼터제로 1~4월까지의 종계입식수가 194만수로 다소 줄기는 했으나 종계사육수수가 원천적으로 늘다보니 병아리생산량 또한 크게 증가하면서 향후 생산과잉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상반기 종계입식수 감소로 하

반기 병아리 생산잠재력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었지만 병아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종계 생산기간 연장과 환우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생산잠재력은 예상보다 더욱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초복과 중복이 들어있는 7월과 말복이 들어있는 8월에 육계가격을 kg당 1,700~1,900원으로 전망하였다. 닭고기 최고의 소비철인 7~8월임에도 낮게 전망하는 것은 그만큼 육계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닭고기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면서 금년 말까지 산지가격은 전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다행인 것은 하반기에는 복경기 이후 아시안게임 등 닭고기 수요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기대를 가져도 될 것으로 본다. 복경기가 들어있는 7~8월에는 무더위가 지난해 보다 심하고 기간도 길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닭고기 수요에 호재가 될 것이며 이후 9~10월은 국내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이 닭고기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돼지고기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닭고기 대체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육계경기는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다.

AI조기종식, 수급조절로 안정화 꾀해야

문제는 실용계 확보를 위한 계열업체들의 종계 생산기간 연장과 환우가 이어진다면 상황은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최근에 증설된 도계장 가동률 문제까지 겹치면서 생산량 증가는 불보듯 뻔할 것으로 보여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도 주시를 해야 할 것이다. 2013년도 닭고기 수입량은 122,188톤으로 평균 매월 1만톤 이상의 닭고기가 우리 식탁을 두드렸다. 올해도 심상치가 않다. 4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을 보면 48,3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017톤 보다 무려 12.4%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과의 FTA협상 타결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수입닭고기의 증가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우선 AI가 조기 종식되는 것이 급선무이다. 여름철에도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나라는 AI발생상재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금년 육계에서는 한 건의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장 피해를 본 것도 닭고기 시장이다. AI뿐만 아니라 수급조절에 힘을 기울여 안정화를 찾아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 지혜를 가졌으면 한다.

(사)대한양계협회 홍보부장 김동진

닭고기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 제2항)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의무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럼 하반기 육계산업 전망

올 연말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돼
종계환우 지속된다면 2015년까지 장기불황 찾아올 가능성 높아



김형진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축산관측팀

지난해 원종계(GPS) 쿼터 감축을 통해 중·장기적인 육용종계 감축으로 닭고기 수급안정을 추진하였다. 실제로 종계 병아리 생산이 감소하면서 2014년 1~5월 종계 입식 마릿수는 257만 마리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하였다. 여기에 금년 1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발생으로 50여만 마리의 종계가 매몰처분되었다. 각 계열업체들은 과거 네 차례 AI 발생 때 학습된 AI 발생 이후 육계 산지가격 상승효과를 노려 종계 확보에 나섰다. 생산되는 종계 병아리는 제한되어 있고, 실용계 병아리 가격은 상승세를 나타냈다. 계열업체에서는 종계 병아리 입식 이외에 종계 확보 방법으로 종계 생산기간 연장과 환우를 선택하였다. 그 결과, 육용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5월 기준 종계 사육 마릿수는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한 772만 7천 마리였으며, 이 중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는 성계 사육 마릿수는 482만 6천 마리로 전년 동월보다 12.4% 증가하였다.

종계 사육 마릿수 증가로 상반기 실용계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육계 사육 및 도계 마릿수도 전년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도계 마릿수 동향

단위: 만 마리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계
2014년	6,373	6,460	6,270	6,561	7,918	7,889	41,471
2013년	6,033	4,775	5,685	6,197	6,921	7,182	36,792
증감율(%)	5.6	35.3	10.3	5.9	14.4	9.8	12.7

주: 2014년 6월은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4년 1~6월 도계 마릿수는 전년에 비해 12.7% 증가한 4억 1,471만 마리로 예상된다.

도계 마릿수 증가로 닭고기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요 감소, 연이은 여객선 침몰 사고로 인한 닭고기 소비 침체가 지속되었다. 6월 월드컵이 개막하였지만, 경기시간의 시차로 닭고기 수요증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육계 산지가격은 닭고기 공급 증가와 수요 감소로 크게 하락하였다. 6월까지 닭고기 산지가격은 1,583원/kg으로 전년 동기간보다 11.7% 하락하였다.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요 감소가 컸던 2~3월 육계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하였다. 4월은 종란 폐기로 인한 닭고기 공급공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지만, 5~6월은 닭고기 공급량은 크게 증가하고 수요 감소는 지속되어 전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6월 23일까지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21.7% 하락한 1,432원/kg이다.

■ 병아리 생산잠재력 지수(2013년 6월=100)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03.3	94.1	88.8	90.8	94.6	100.0
2013년	94.6	86.1	86.7	88.0	93.3	103.1
증감율(%)	9.2	9.2	2.3	3.2	1.4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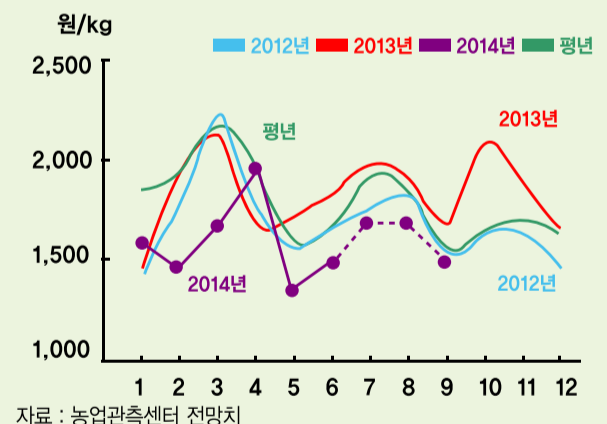
자료: 농업관측센터 추정치

금년 1~5월 육용종계 병아리 입식 마릿수 감소로 병아리 생산잠재력 상승폭은 둔화되었지만, 8월까지의 여전히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12월에는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종계 사육 농가의 병아리 계약 물

량과 계열업체의 자체 공급을 위해 종계환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어 올 연말까지 병아리 생산잠재력은 전년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

7~8월 닭고기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닭고기 공급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중 닭고기 수요가 가장 많은 초복과 중복이 있는 7월에는 1,600~1,800원/kg, 말복이 있는 8월도 1,600~1,800원/kg으로 전망된다. 9월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지만, 닭고기 수요가 감소하는 추석 전후와 맞물려 6~7월 환우에 들어간 종계가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여 9월에 도계될 것으로 보여, 산지가격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판단된다. 9월 산지가격은 1,500원/kg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올 연말까지 산지가격은 전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종계 환우가 지속된다면, 산지가격이 원가이하에서 형성될 수도 있으며, 2015년까지 장기적인 불황이 찾아올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 육계 산지가격 전망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AI 정책토론회

지난 6월 10일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국회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발전포럼 선임대표) 주최로 'AI 원인 진단 및 방역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었다.

토론자로 나선 (사)대한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AI는 국가적 재난이라며 운을 뗐다. AI 보상금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지자체에서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전액 국

비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금이동 승인서를 상시화시켜야 하며, 특별방역기간에는 혈청검사 등을 도입하여 AI 사전예방 및 조기종식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그 외에 농가에서 수용가능한 이동제한조치와 규정 마련,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AI 보상가격 재검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상임 부회장은 토

론자로 참석하여 AI 발생 시 빠른 시간 내에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의 신속·정확한 명령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언론독감이라 칭할 만큼, 언론에서 과도한 보도와 잘못된 용어(조류독감) 사용으로 농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살처분 보상금문제와 예방적 살처분 정책의 재검토, 닭고기관련단체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H O T
ISSUE

AI 조기종식과 효과적 대응책 마련 위한 'AI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철새도래지 내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및 이동제한조치 시 검사 후 출하허용 키로

지난 1월 16일 전북 고창에서 최초 발생한 후 5월 25일까지 520호 농가 1,387만마리가 살처분된 상태다. 최근에는 지난 6월 13일 강원도 횡성군 거위 농장과 6월 17일 전남 무안 오리농장에서 AI가 발생하여, 횡성에서는 거위 692마리와 닭 20마리, 무안에서는 오리 1만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축산부)는 지난 6월 13일 장기화되고 있는 AI 조기종식과 보다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AI방역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농축산부는 AI방역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안을 발표하였다.

첫째, AI 발생 시 사전예방(안)으로는 AI 방역관리지구를 설정하고 관리하기로 했다. 철새도래지 등 발생위험이 높

은 지역과 가금사육이 밀집되어 있어 AI 발생 시 파급영향이 큰 지역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AI 방역관리지구에 신규 진입하는 축산업에 한하여 일반지역보다 허가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계열화사업자에게 AI 등에 대한 방역의무를 부여하는 '계열화사업자 책임관리제도'도 도입하여 방역실태 점검결과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에게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둘째, 발생 시 조기종식 방안으로는 신속대응을 위해 SOP를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대 명칭에 있어서 AI 위험정도에 따른 명칭(오염지역, 위험지역, 경계지역)을 방역조치 내용 중심으로 개선(집중보호지역, 보호지역, 예찰지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방역대 설정에 있어서도 지형 및 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살처분 범위의 확대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살처분을 신속하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동제한조치에 있어서는 보호지역(3km 이내)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이동제한을 실시하지만, 출하일령에 이른 닭은 임상검사 및 정밀 검사 후 가축방역관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축방역관이 출하 이전에 7일간 임상관찰을 진행하며 출하직전 AI 정밀검사(PCR)를 실시하고 '가금운송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 하에 가장 인근에 위치한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하기로 했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Standstill)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확산 우려 시에만 발동했으나 개선안에서는 AI가 확산될 우려

가 있거나 최초 발생 시 발동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셋째, 농가 보상 및 지자체 지원체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AI 보상금 산정기준이 되는 가금가격이 시세에 따라 반영되어 농가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산지 대표가격 산정체계를 구축하고 동 가격을 살처분보상금 지급기준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행 감액기준을 재설정(질병미신고 시 : 기존60%감액→개선50%감액)하고 방역 소홀책임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AI 연속발생 시 : 1회 20%, 2회 50%, 3회 80% 추가감액)하기로 했다.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여 평상시에 방역조치 등을 충실히 이행한 농가 등이 단순 부주의로 AI가 발생하여 보상금이 감액될 경우에 10% 이내에서 감액을 경감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3종 가축전염병인 IB에 걸린 닭 도축금지 항목 삭제돼야 한다

도축검사 공영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엄격한 적용에 대한 우려감 높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차장이나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수의사 자격을 갖춘 검사관이 도계장에서 도축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 동안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의 도축검사는 업체 소속의 수의사가 담당해 왔으나 7월 1일부터는 공무원 소속의 수의사(검사관)가 도축검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공무원 소속의 검사관이 도축검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의 닭 질병 도축금지 항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별표 3-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의 항목이 문제가 된다.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는 가축의 검사 결과 다음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며, 닭과 관련된 질병은 뉴캐슬병, 조류인플루엔자, 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등 7개 질병이 연관되어 있

다. 이 법령에 의하면 앞으로 도계장에서는 1종 가축전염병(뉴캐슬병, 조류인플루엔자), 2종 가축전염병(가금콜레라, 추백리, 가금티푸스), 3종 가축전염병(닭전염성후두기관염(ILT), 닭전염성기관지염(IB))에 관계없이 닭의 도축이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1종 가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피해규모가 큰 만큼 도축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하리라 본다. 2종 가축전염

병의 경우에도 발생 시 피해가 심각하진 않아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염위험성도 낮은 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도 도축을 금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고병원성(1종 가축전염병)과 저병원성(3종 가축전염병)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수의사의 판단과 재량이 관여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 시행일〉

-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마리 초과인 도축장 : 2014년 7월 1일
-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마리 이상 8만마리 이하인 도축장 : 2015년 1월 1일
-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마리 미만인 도축장 : 2016년 1월 1일

닭고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축검사 수수료 인하 필요하다

닭고기관련단체,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인하 요청 진행 중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제가 실시됨에 따라 책임수의사의 도축검사 수수료가 책정되게 되었다. 문제는 각 지자체에 따라 도축검사 수수료가 제각각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3년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할 시기에는 이 도축검사 수수료는 당시의 책임수의사 고용비용 수준에서 증가

시키지 않는 선으로 진행하기로 하여 닭 도축검사 수수료는 4원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이를 지방재정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며 도축수수료는 법안 개정 당시에 약속했던 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닭 도축 시 전북은 5원, 경기도는 7원, 충북 7원, 경북 10원, 충남 10원으로 도축수수료를 책정하자 (사)대한양계협회, (사)한국계육협회, (사)한국도종닭협회는 성명서를 발

표하고 각 지자체에도 적극적으로 도축수수료 인하를 요청했다.

이처럼 닭고기관련단체들의 노력 덕분에 도계물량이 작아 아직 도축검사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한 전남, 경남, 강원, 제주를 제외하고는 각 지자체에서 수수료 인하 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나서고 있다. 충남에서는 10원에서 5원(내년부터 도축검사 공영제 실시), 충북은 7원에서 5원(내년까지 5원, 이후 6원으로

조정)으로 변경했으며, 전북은 그대로 5원으로 책정했다. 단, 경북과 경기도는 각각 10원과 7원을 기존 수수료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지자체 관계자들은 언급했다.

닭고기관련단체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도축검사 수수료의 인하가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더욱 더 닭고기업계의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각 지자체의 도축검사 수수료가 인하되길 기대해본다

H O T
ISSUE

0 0 3

국산에 비해 수입산 닭고기 비싼 값에 팔린다

3개 대형마트 비교결과, 수입산 비싸고 인증마크 실효성 의문시 돼



본지 기자는 대형마트를 찾아가 닭가슴살 캔제품을 비교분석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입산 닭고기가 국산에 비해 비싸게 팔리고 있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취재에 앞서 전국적인 제품가격 비교를 위해 3개 대형마트의 홈페이지를 살펴보고, 이마트의 경우, 닭가슴살 캔제품 405g(135gX3)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산 H사 5,760원, S사는 4,300원으로, 수입산 D사는 5,180원으로 수입산 D사제품이 S사 제품에 비해 비쌌다. 롯데마트 홈페이지에서는 405g(135gX3)이 국산 H사 4,980원, 국산 S사 4,950원, 수입산 D사 5,480원으로 오히려 수입산이 비쌌다. 홈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135g이 국산 S사 2,880원, 국산 S사 2,000원, 수입산 D사 2,980원으로 역시 수입산이 비싸게 판매되고 있었다.

사실확인을 위해 지난 6월 18일 직접 매장을 찾았다. 이마트 영등포점의 경우, 닭가슴살 캔제품 405g(135gX3)이 국산 H사 5,760원, 국산 S사 4,300원, 수입산 D사 5,180원으로 수입산이 중간가격을 유지했다. 이마트 영등포점에서는 치킨너겟 제품도 판매되고 있었다. 태국산 1kg이 10,500원으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국산 제품의 비교분석을 위해 1kg으로 환산했다. 국산 H사는 11,357원(700g 7,950원), 국산 이마트PB 10,400원(450g 4,680원), 국산 SD사 9,975원(800g 7,980원)으로 태국산이 H사 제품을 제외하곤 오히려 비싼 가격

에 팔렸다. 롯데마트 구로점에서는 닭가슴살 캔제품 405g(135gX3)이 국산 H사 4,980원, 국산 S사 4,950원, 수입산 D사 5,480원으로 수입산이 비쌌다.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는 닭가슴살 캔제품 135g이 국산 H사 2,800원, 국산 S사 2,000원, 국산 홈플러스PB 2,300원, 수입산 D사 2,980원으로 수입산이 가장 비싸게 판매되었다. 특히 일부 국산 제품은 국내산품질보증과 국산닭고기인증 및 HACCP 인증마크가 붙어 있음에도 수입산에 비해 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있는 인증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해 보인다.

계육협회, 친환경 페스티벌 통해 닭고기의 뛰어난 맛과 영양 소개



친환경농축산식품 페스티벌 운영진들이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기원하며 파이팅 하고 있다

회원사의 친환경 닭고기제품 전시하며 닭고기와 육계산업의 우수성 알려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는 '2014 제2회 대한민국 친환경 농축산식품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친환경 농축산식품 페스티벌은 친환경 농축산식품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동시에 친환경 축산자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농장 활용방안을 모색

하여 개방화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육성하고자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사)한국계육협회에서 홍보관을 마련해 친환경 닭고기제품인 '(주)하림 자연실록', '햇살먹은 청정계', '(주)체리부로 1등급 친환경닭고기', '(주)마니커 닭터의 자연' 등을 전시했다. 또한 계육협회 관계자들은 마니커의 친환경 정육 및 양념장 무료시식코너를 마련해 국민의 단백질공급원이자 뛰어난 건강식품인 닭고기의 우수성을 관람객들에게 설명했다. 그 외에 농협목우촌 또래오래에서는

9292치킨을 무료로 제공하며 닭고기의 맛과 영양을 홍보했다. (주)마니커는 행사에 참석해 친환경브랜드 '닭터의 자연' 신선육과 레토르트 제품 등을 소개했다. (주)건지와사람에서는 직접 개발한 고상식계사(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사)에서 정성스럽게 사육한 대형닭 훈제제품을 선보였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이자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은 요리체험교실을 통해 관람객들과 함께 '닭고기 브리또'를 만드는 요리체험교실을 열고, 피부미용과 다이어트에도 좋고 단백질공급원으로도 뛰어난 닭고기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소개했다.

축파라치 근절 위한 대책 마련되어야 한다!

산닭시장 양성화 및 무허가축사 관련법에 대한 조치 필요
이른바 축파라치로 인한 농장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축파라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가축분뇨법 등 축산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자를 신고해 포상금을 받는 사람들을 이르는 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 따르면, 닭과 관련하여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는 비포장 닭, 불법도계, 무신고영업 등이다. 특히 불법도계의 경우 전통시장 내에서 산닭을 도계하는 경우가 문제되고 있다. 축파라치는 전통시장에서 산닭중

사자들이 소규모 산닭 매장에서 도계하는 경우를 포착하고 신고해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재래시장 내에서 산닭을 판매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문화이지 불량식품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전통시장 유지보존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또한 산닭시장 양성화를 위해 (사)한국토종닭협회는 그동안 지적되어 온 방역 및 위생시설을 개선한 시범점포를 충북 내 전통시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축파라치는 무허가축사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도 이득을 취하고 있다. 환경

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거리제한을 시행일인 내년 3월부터 3년 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결정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나 환경부에서는 유예기간을 앞두고 무허가축사에 대한 단속은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신고가 접수되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되어 무허가축사 농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 [별표1]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170개 법률이 포함되어 있어 가능한 일이다. 축파라

치는 이를 악용해 무허가축사를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가축분뇨법 자체가 개정되지 않는 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축파라치의 신고를 접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시작되는 내년 3월 이전의 기간 동안(현재~내년 2월) 축파라치의 부당한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강구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무허가축사와 관련된 법률이자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대상법률로 포함되어 있는 가축분뇨법의 빠른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축파라치의 활동근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

2013년 육계생산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자료

2010년과 2013년 경영비 상승폭은 작으나 소득은 1/3 수준으로 떨어져

2013년 연평균 육계소득 2,900만원

지난 5월 30일 통계청에서는 '2013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3년 육계 kg당 생산비는 병아리 산지가 격 상승에 따른 가축비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39원(2.8%) 증가한 1,400원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13년 육계 마리당 순수익은 육계가격 상승으로 총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사육비 증가폭이 더 커 전년보다 35원 감소한 61원이라고 통계청은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농가의 수익성을 나타낸 통계청의 표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계 농가의 소득은 총수입(2,089원)에서 일반비(1,944원)을 뺀 145원/마리이다. 이에 따라 육계 한 마리당 소득을 145원으로 설정하고 육계 한 농가가 평균 4만 수를 사육하고 1년에 5회전을 한다고 가정하면, 육계농가의 연평균 소득은 2,900만원이

된다. <145원 × 40,000수 × 5회전 = 29,000,000원>

이런 계산법으로 2012년의 육계농가 연평균 소득을 계산하면 3,720만원이 된다. <186원 × 40,000수 × 5회전 = 37,200,000원>

통계청의 조사결과 신뢰할만 한가?

통계청의 조사결과와 검증은 위해서는 지난해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대표 김정주)에서 발표한 '육계 사육경비 조사 및 경영성과 분석' 최종보고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에서는 2010년 육계 1.5kg 당 4만수, 5회전을 기준으로 연간 농가 소득을 평균 3,318만원으로 도출해 냈다.

하지만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육계농가 소득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7,840만원이다. <392원 × 40,000수 × 5회전 = 78,40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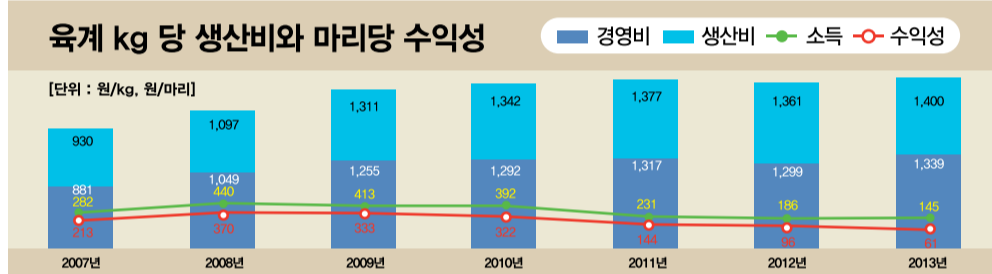
애그리비즈니스 경영연구소의 3,318만원과 통계청의 7,840만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보이므로 통계청의 분석 자료에 신뢰가 안 가는 것은 사실이다.

단순히 통계청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농가소득을 보더라도, 2010년(392원/마리)에 비해 2013년의 농가 소득(145원/마리)이 1/3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전체적으로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약

화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10년 경영비(1,342원/kg)가 2013년 경영비(1,400원/kg)에 비해 상승폭이 작았던 반면, 소득에서는 1/3 수준으로 급격한 원인을 보인 점에서는 의구심마저 든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확한 자료수집과 원인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육계 kg 당 생산비와 마리당 수익성

구분	육계(원/kg)		육계 수익성(원/마리)					
	경영비	생산비	총수입(a)	일반비(b)	사육비(c)	소득(a-b)	순수익(a-c)	
2013(A)	1,339	1,400	2,089	1,944	2,028	145	61	
2012(B)	1,299	1,361	2,072	1,885	1,975	186	96	
증감	A-B	40	39	17	59	53	-41	-35
	%	3.0	2.8	0.8	3.1	2.7	-22.0	36.5



육계질병가이드 / 육계에서의 다리이상증

육계품종이 급격한 체성장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량되기 때문에 다리이상증은 필연적으로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만, 자주 보이는 질병이 아니더라도 막상 발병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당황하기 십상입니다. 간략하게나마 육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다리이상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골연골이형성증'은 경골성장판의 과대성장에 의해 생기는 질병으로 2~4주령 사이에 주로 발생합니다. 아직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비타민D, 칼슘, 인의 비율, 유전적 요인 등이 관련되어있으며 점등관리프로그램에 의해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아직 뚜렷한 치료법은 없습니다.

② '구루병'은 비타민D3, 칼슘, 인의 결핍 및 불균형에 의해 골격이 연화되는 대사성질병으로 2주령 정도의 어린 병아리에서 발병합니다. 필드에서는 특정영양소 결핍으로 발생한 경우는 보기 힘들으나, 콕시듐, 장염 등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인 영양소 흡수가 힘들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는 질병에 대한 처치와 비타민, 미네랄 제제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③ '전염성 활막염'은 주로 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에 의해 여러 관절에 관절염을 야기하는 질병입니다. 일반적으로 4~16주령에 발병하므로 육계에서는 증상까지 관찰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마이코플라즈마에 대한 항생제클리닝, 종계에서의 백신이 유효합니다.

④ '바이러스성 건초염'은 레오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무릎관절에 붙어있는 건초에 병변을 일으키며 육계 3~4주령에 주로 발병합니다. 발병 후에는 농장에 상재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소독과 종계에서의 백신접종이 필요합니다.

⑤ '대퇴골두괴사증'은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등의 세균감염에 의해 대퇴골두에 괴사를 야기하는 질병으로 최근 장내구균 감염에 의한 발병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발병 일령은 2~4주령으로 후반부로 갈수록 폐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항생제투여로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powerseeker@hanmail.net로 문의주세요.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주)하림, 캠핑족 위한 '자연실록 정육 소금구이' 출시



늘어가는 캠핑족을 위한 신제품을 출시했다.

지난달 새롭게 출시한 '자연실록 정육 소금구이'는 야외에서 간편하게 구워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닭고기 제품으로 자연실록 브랜드의 닭가슴살을 100% 원료로 했다.

'자연실록 정육 소금구이'는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든 순살

닭고기 제품으로 프리미엄 소금으로 손꼽히는 토판 천일염에 웰빙 허브를 섞은 '토판 허브맛 소금'도 함께 동봉되어 있다.

또한 닭고기를 번거롭게 손질하거나 별도의 양념을 준비하지 않아도 토판 허브맛 소금을 뿌려 구우면 간편하게 즐길 수 있어 캠핑 등 야외활동에서 손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닭고기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닭다리 부위만을 엄선한 정육 제품으로, 씹을수록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급속동결시스템(IFF, Individual Fresh Frozen)으로 생산돼 갓 잡은 닭고기의 맛과 영양이 살아있다.

제품에 동봉된 토판 허브맛 소금은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토산물인 토판 천일염을 주재료로, 건마늘, 로즈마리 등 다양한 천연 허브를 배합했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사)대한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



종계부화분과위는 지난 6월 11일 이사 9명과 분과위원 29명을 선임했다

제20대 분과임원 구성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연진희)는 지난 6월 11일 대전충남양계협회 회의실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AI발생으로 그동안 미루어졌던 분과 임원 선임이

진행되었다. 위원장을 제외하고 이사 9명, 분과위원 29명을 선임되었다. 한편, 친환경 중축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기준(안)에 대해 토의가 진행되었다.

육계분과위원회



육계분과위는 생산자단체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각종 현안 논의 및 보고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6월 18일 대전에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축산업 허가제교육 보수교육 안내와 분회 알선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

었으며 생산자단체 정의를 명확히 해 농가와 관련된 일은 계열사의 개입을 차단하고 의견이 왜곡되지 않고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법 및 축산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중국 수출농업 경쟁력강화 현지조사

4박 5일간 국내 농축산물 경쟁력 파악 및 중국 농축산물 현황 조사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지난 6월 23~27일까지 중국 현지 농축산물 생산유통구조 현황파악 및 수출유망 농식품 발굴로 중국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

토태를 마련코자 중국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닭 사육현장, 축산물 가공수출 기업, 사료회사, 소비지 등을 돌며 수출 경쟁력 확보방안을 모색했고 중국 농산물 유통 및 소비형태 조사를 통해 향후 국내 농축산물 발전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양계장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는 최근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양계장 안전관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안전사고 예방 캠페

인을 벌이고 있다. 본 내용은 팜플렛과 회원지(월간양계 7월호)를 통해 각 지부 지회는 물론 전국 회원농가에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다.

- 다 음 -

1. 전기누전에 의한 화재예방

- 설취류 등에 의해 전선이 훼손되지 않도록 구서작업을 철저히 합니다.
- 환기제어장치인 컨트롤 박스를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먼지를 제거합니다.
- 빗물이 전선줄을 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전선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 열풍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2. 인제사고 예방

- 물청소시 누전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반드시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고 작업을 합니다.
- 추락사고를 막기위해 케이지나 지붕 등 작업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 기계수리시는 반드시 기계작동을 멈추고 정비를 합니다.
- 계분, 계란 등 차량(이동식 지게차 등)을 통해 이동시 반드시 숙련된 운전자가 조작하도록 합니다.

3. 기타

- 여름철 낙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뢰침을 반드시 설치하고 전기공급 중단에 대비해 예비 발전기를 비치합니다.
- 겨울철 동파를 막기위해 급수관리와 단열을 철저히 합니다.
- 장마철에 대비해 배수로를 정비하여 폭우에 대비합니다.
- 폭설에 대비해 지붕을 자주 쓸어내리고 기둥을 점검합니다.

양계장 안전사고 예

1. 전기합선에 의한 화재
2. 열풍기 과열에 의한 화재
3. 컨트롤박스 청소미흡에 의한 전기합선
4. 물청소시 감전에 의한 사고
5. 안전장치 없이 작업시 추락사
6. 농기계관리 조작 미흡 및 관리소홀에 의한 사고
7. 기계작동시 작업중 기계에 옷이나 몸이 끼이는 사고
8. 농장내 차량(이동식 지게차 등) 조작시 부주의로 사고유발
9. 낙뢰에 의한 정전사고
10.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
11. 폭설에 의한 지붕 붕괴

(사)한국토종닭협회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간담회 참석

전통시장 양성화 건의

지난 6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축단체 상임대표와 김연수 회장 등 9명의 축산관련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식약처장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민·관 협업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연수 회장은 △전통시장 양성화, △

도축검사수수료 건 등에 대하여 건의했다. 특히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현재 전통시장 산닭 활성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전용 포장지 개발, 방역 활동 등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스스로 변화를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계부화분과위원회 개최

6월 정기 종계부화분과위원회(위원장 정학동)가 지난 6월 18일 대전 유성 소재 한식당에서 개최되었다.

협회는 최근 강원도 횡성과 대구, 전남 무안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음을 보고하고 종계장마다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특히 병아리 분양 때 방역 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요청했다.

분과위원회의에서는 2014년 종계 분양 현황과 내년 토종닭 전망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분과위는 내년 토종닭 산

업이 과잉공급으로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데 공감하며 토종닭 수급과 관련하여 올해 한협에서 약속한 신계 분양숫자를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학동 분과위원장은 “지난 2011년 40여만수 종계 분양으로 과잉 공급이 이뤄져 지난 2년간 너무 어려웠다”고 토로하며, “한협과 종계·부화장, 계열사 모두 함께 머리를 모아서 어려움이 예고된 내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자”고 했다.

산닭유통분과위원회 개최



전통시장 양성화의 기를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자 강조하고 있는 최승호 분과위원장

6월 긴급 산닭유통분과위원회(위원장 최승호)가 지난 6월 21일 대전 유성 소재 한식당에서 열렸다.

분과위는 특히 최근 강원도 횡성, 대구 달성, 전남 무안에서 거위, 오리 등 고병원성 AI가 발생, 이와 관련하여 방역 당국은 발생 농장 가금류가 전통시장으로 유입되어 전통시장 일제 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검사 이후 모든 가금류를 비

우고 소독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또한 분과위원장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한 규제개선 토론회에서 전통시장 양성화와 관련해 시설 및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된 바 충북 소재 전통시장 내 한 점포를 대상으로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요구와 생산자의 필요의 접점을 도출해 빠른 시간 내에 리모델링하고 식약처 관계자와 함께 점검해 전통시장 양성화의 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전통시장 일제 소독



토종닭협회는 전통시장내 산닭판매를 중단하고 일제소독을 실시했다

살아있는 가금류를 취급하는 전통시장을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일제 소독했다.

이번 소독은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강원 횡성, 전남 무안에서 사육한 가축이 전통시장과 역학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전통시장 일제 검사 후 효과적으로 차단방역을 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회와 산닭유통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산닭 판매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 판매점 대부분 일제소독에

참여해 모든 가금류를 전부 비우고 어리장 소독을 실시했다. 또한 농장 출입이 잦은 운송차량도 세차 후 일제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급 받았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전통시장 일제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가 검출되지 않아 다행이다”라고 하며 “전통시장으로 인해 AI가 전파되지 않도록 협회와 분과위는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당일 도축에서 판매까지 하루에 끝낸다!



롯데마트, 60개 점포에서 그날 잡은 닭을 만나질 만에 판매해

롯데마트가 지난 6월 26일부터 당일 도계한 닭을 판매하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기존 냉장 닭고기의 경우, 도계 후 매장에 진열되는 과정은 24시간 가량 소요됐으나 롯데마트가 판매하고 있는 ‘오늘 생산한 닭’의 경우 도계 작업을 자정부터 실시해 6시간 가량 앞당김으로써, 당일 도계 및 당일 판매를 가능케 했다.

이로써 롯데마트는 서울역점이나 잠실점 등 전국 60개점포에서 새벽

에 도계해서 당일 매장 판매가 가능한 ‘오늘 생산한 생닭(1kg)’을 6,000원에, ‘오늘 생산한 볶음탕용 닭(800)’을 5,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올 여름철 폭염도 예상되고 있어 하절기 신선식품 품질 관리가 중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롯데마트는 전남 부안에 도계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참프레’와 계약해 기존 시세보다 5% 높은 가격에 월 50톤 가량의 물량을 확보했다.

‘참프레’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가격을 받는 대신, 기존 작업보다 6시간 가량 앞당겨 기온이 한낮보다 낮은 자정부터 도계 작업을 실시하며, 롯데마트는 이렇게 입고된 ‘오늘 생산한 닭’ 2종은 당일 판매만을 원칙으로 하는 신선도를 높인 프리미엄 상품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롯데마트는 당일 도축, 당일 판매 방식의 프리미엄 닭고기를 수도권 근처 60개 점포에서 우선 선보이며, 소비자 재구매 여부 등을 판단해 전점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해산물을 곁들인 보양식 삼계탕

일반적인 삼계탕에 해물종류(전복, 낙지, 새우)들을 넣어서 보다 영양가있고 깊은 맛을 내는 닭고기 보양식이다. 특히 '바다의 산삼' 전복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올렸던 진상품이었으며 자양강장과 해독작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재료 닭 1.2kg, 불린 찹쌀 5T, 낙지 180g, 전복 100g(2개), 새우 100g, 확백지단 약간, 수삼 1뿌리, 밤 5톨, 대추 5알, 마늘 1통, 은행 5알, 생강 1쪽, 대파 송송 썰린 것 약간, 통후추 5알, 물 7컵, 소금 2작은 술, 청주 3큰 술

Cooking

1. 닭은 뱃속 양옆에 들어있는 허파를 제거한 다음 깨끗이 씻는다.
2. 찹쌀은 30분 정도 불려서 체에 건진다.
3. (1)의 닭 뱃속에 불린 찹쌀 5큰술과 통마늘을 넣고 배 양쪽에 칼금을 넣어 다리를 어긋하게 끼워서 내용물이 나오지 않게 한다.
4. (3)의 닭을 냄비에 담고 미리 준비한 수삼과 밤, 대추를 넣어준 후 물 7컵과 소금 약간을 넣어 끓여준다.
5. (4)의 닭을 20분 정도 끓여서 어느 정도 익으면 닭과 부재료들을 다른 냄비에 담고 국물은 체에 면보를 대고 걸러준다.
6. (5)를 다시 한 번 끓여 주면서 전복과 낙지를 넣어서 살짝만 익혀준다.
7. 닭과 부재료들을 담고 웃고명으로 계란지단과 볶아놓은 은행 몇 알을 올린다.



자료제공 : (사)대한양계협회

퀴즈 낱말맞추기

1		12		11	
2	3		8		9
	4	5			
7				10	
6					

◇ 가로풀이 ✨ ✨

1. 일정하게 사는 곳과 하는 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2. 지구에서 바다와 강 등 물이 있는 곳을 제외한 부분
4.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
6. 빨래하는 기계
8. 농구를 할 때 공을 던져 넣을 수 있도록 만든 대
10. 투표함을 열고 투표의 결과를 검사함
11. 학교나 학원 따위에서 위촉을 받아 강의 를 하는 사람

◇ 세로풀이

1. 닭, 소, 돼지 등의 식용육에 대하여, 다릿 고기를 부위별로 분할한 것
3.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
5. 여러 가지 계산을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7.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되도록 세금을 적게 냄
8. 농사지를 땅과 농기구, 가축, 노동력 따위를 갖추고 농업을 경영하는 곳
9. 운동 경기에서 거를 차례를 정해 놓은 표
10. 금하거나 경계하던 것을 풀고 자유롭게 드나들거나 교류하게 함
11. 야구에서 투수가 던지는 빠르고 강한 공
12. 아들과 딸을 아울러 이르는 말

74호 정답

	유		IC	지	BY
표	IK		IV		辰
IV		유	IK	古	
지	근	목		IV	농
	누		지		곰
IV	辰		IV	유	古



양 계 비법전수

가축용 생균제에 함유된 미생물은 무엇이며 그 효과는?

국내에서 가축용 생균제를 포함하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는 유산균, 효모균 및 고초균 등이 있으며 각 미생물마다 가축에 미치는 영향이 조금씩 다르다. 먼저, 유산균은 장내에서 유해균과 경쟁적 배제를 통해 우점하여 장을 건강하게 해주며 효모균은 가축에게 있어 사료의 기호성을 높여주며 고초균은 환경개선제로 이용될 만큼 약취를 제거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

생균제가 갖춰야할 조건으로는 첫째, 사람이나 가축에게 병원성이 없어야하며, 둘째로 가축의 위산 및 소화 효소에 의해 미생물이 파괴되어 선 안 되며, 셋째, 장내 유해세균과 싸워서 장내에서 우점을 해야 한다. 닭에게 있어 미생물제제를 급여하여 장관 내 유익미생물의 유지, 사료영양소의 이용효율개선 및 면역력 증가 등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축과

같다.

1. 증체량 및 산란율 증가, 사료효율 개선, 영양소 이용효율 증진
2. 암모니아 등의 유해가스 발생 억제, 연변 발생 감소, 바닥 깔짚 수분함량 감소
3. 장내 유익균 증가, 병원성 미생물 억제 및 장점막 조직발달 강화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 차단방역 철저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